

언론 사람

08
2021
VOL.254



04 인터뷰 人+人
임오경 국회의원

06 Newmedia of the World
뉴스 알고리즘 감시와
정책설계자의 역할

08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 읽기
늘 그곳에 있던 분열

22 미디어 이슈 진단
대통령 선거와
정치 팩트체크

Contents

2021 August

04

인터뷰 人+人

임오경 국회의원

06

Newmedia of the World

뉴스 알고리즘 감시와 정책설계자의 역할

08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 읽기

늘 그곳에 있던 분열

10

새가슴 PD의 분쟁현장 르포

거룩한 화장실

12

돋보기

진정한 지식인

14

단어의 중력

미련

16

책의 밀도

얇은 관계가 망치는 삶과 기억
윌리엄 트레버의 『펠리시아의 여정』

18

식물관찰자의 일기

숲 속 약국

20

NEWS

위원회 뉴스·위원 동정

22

미디어 이슈 진단

대통령 선거와 정치 팩트체크

23

키워드로 보는 40년사

홍보책자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조준원 발행일 2021년 8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표지작품 S-BELOV <Blue tropical sea>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근대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은 “올림픽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참가이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복이 아니라 노력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가 연기되었다 어렵게 개막한 2020 도쿄올림픽이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을지,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의 결과들이 경기장에서 펼쳐질지 그려 봅니다.

언론  사람 8월호는 세 번의 올림픽에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냈던 임오경 의원에게 올림픽 출전 경험과 도쿄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Newmedia of the world> 코너에서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을 감시하는 기술도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런던 사는 변호사의 뉴스 읽기>에서는 축구경기가 드러낸 차별문제에 관한 남다른 시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책의 밀도>에는 알고 피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식물관찰자의 일기>에는 오랜 시간 인류를 치유 해주었던 식물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가 몸과 마음의 휴식을 재촉하는 8월입니다.

언론  사람 8월호와 함께 잠시 숨을 고르고 쉬어가는 시간들을 즐겨보셨으면 합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뛰어넘는 용기, 희망, 감동 선사하는 올림픽 도길

임오경 국회의원

- 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바르셀로나, 애틀랜타,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
- 서울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
-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 국가대표팀 감독

Q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까지 세 번의 올림픽 출전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올림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A 고등학교 2학년 때 태극마크를 달았고, 대학교 3학년 때인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얻게 됐어요. 4년 뒤인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는 은메달, 많은 분들에게 '우생순'으로 알려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따게 되었죠. 올림픽은 세 번, 세계선수권대회도 두 번 출전해서 모두 메달이 있는데,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올림픽에 나가게 된 과정부터 결승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아테네 올림픽이에요. 그 때를 돌아해보면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후회는 없어요.

Q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팀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올림픽 출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국 은메달이라는 결과를 얻어내기까지의 과정들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A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것부터 극적이었어요. 2003년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그 해 세계선수권대회 5위 안에 들어야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때 협회에서 이미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저와 오성옥, 오영란 일명 '아줌마 부대'에게 복귀를 요청했는데 사실 처음엔 거절했어요. 경기를 뒀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나라가 부르고 감독, 코치님들, 그리고 후배들이 기다리고,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이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대표팀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올림픽 출전권을 얻었고, 결승전까지 진출하게 됐어요. 참 알갭게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편파판정으로 금메달을 놓치게 만들었던 덴마크를 2004년에 또 다시 결승전에서 만났죠. 이번에는 꼭 이기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시다시피 열아홉 번의 동점 상황, 1, 2차 연장까지 128분 혈투 끝에 페널티 스로우로 메달 색깔이 결정됐죠. 출전했던 선수, 감독, 코치 모두 울고 기도하며 경기를 치른 기억뿐입니다. 경기에선 졌지만 저에겐 금메달을 땀 때보다 더 좋았던 대회입니다. 금메달 보다 값진 선물을 우리 국민들이 주었기 때문이지요. 함께 울고 웃고 축하해준 그때의 기억,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 제목처럼 제 평생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Q 이번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우려,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염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여러 부정적 이슈들이 산재한 가운데 개막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보이콧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많이 내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A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 내 독도 표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과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했다고 봐요. 이 과정에서 가장 속상했던 점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마저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선 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보이콧을 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 각자의 인생을 걸고 피땀 흘리는 선수들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의 역할이라고 봤어요.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정부가 이해 관계자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법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국 열도(쿠릴 열도)가 일본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러시아 정부와 함께 대응하고, IOC 전체 위원에게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한-일 IOC 위원들의 접촉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스포츠, 체육 관련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신데요. 어떤 사안들에 주목하고 계신지요?

A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포츠 현장의 각종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전문체육인과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고(故)최속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인권 기준을 강화한 법안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민생 사안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감염병 방역과 예방조치 시 체육시설 종류와 이용자 연령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체육 시설 운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주어진 것엔 책임을 다해야만 발 뻗고 잘 수 있는 성격 때문인지 현재까지 26개의 법안이 통과되었고,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 영광도 얻었는데요. 사실 법안 발의 수나 본회의 통과 성적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수확이 있다면 민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또 국민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 위한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숭고한 과정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신체,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특히 청소년들의 건강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결과들이 보도되고 있고, 유·소년기에 접할 수 있는 운동종목이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더 많은 스포츠를 접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점들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A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전 세계 146개국에서 조사해 발표한 '청소년 신체활동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들이 뛰어놀 공간과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교육과정 내 체육수업 비중은 줄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척추측만증 환자 중 10대 청소년 비율이 약 45%에 달합니다. 이 문제는 어른들의 책임이 커요. 공교육에서 체육수업 비중을 늘리고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수업 비중만 늘려선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운동은 축구, 야구, 농구처럼 인기 스포츠에 편중되어 있어요. 미디어에서도 그렇고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종목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직·간접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팬데믹으로 근대 올림픽 124년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개최가 연기되었습니다. 선수 그리고 지도자들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운동하기도 쉽지 않았을 테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 지도자들에게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국민들 모두 선수단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낼 겁니다. 예전부터 그랬듯 스포츠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많은 분들께 용기와 희망 그리고 감동을 선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선수단이 침체되어 있는 체육계에 촉촉한 단비를 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두 부상 없이 경기 잘 치르시고 오길 바랍니다. Team Korea Fighting!!

뉴스 알고리즘 감시와

정책설계자의 역할

페이스북 크라우드탱글(Crowdtangle)¹⁾은 투명성의 보루였다. 뉴스피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향한 전세계적 비판은 크라우드탱글로 인해 공격 수위가 조절될 수 있었다. 공동체를 위한 건강한 알고리즘 개발에 힘쓰겠다는 페이스북의 진정성도 크라우드탱글이 있었기에 통할 수 있었다.

7월 중순, 페이스북이 크라우드탱글을 해체하려 한다는 갑작스런 소식²⁾으로 떠들썩했다. 투명성을 위해 수년간 갖은 애를 써왔던 크라우드탱글 주요 간부들을 다른 부서로 재배치했다는 내용이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 투명성을 둘러싼 페이스북 조직 내부의 갈등과 쟁투에서 크라우드탱글팀이 패배한 결과였다. 뉴욕타임스 테크 칼럼니스트 케빈 루즈는 크라우드탱글 창업자의 말을 인용, “크라우드탱글을 완전히 없애거나 투입된 자원을 굶기기로 결정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평하기까지 했다. 조직 안에서 벼랑 끝 운명으로 내몰리고 있는 크라우드탱글의 비루한 처지를 상징한다.

크라우드탱글은 페이스북이 2016년 인수했던³⁾ 콘텐츠 확산정보 분석 도구에 불과했다. 어떤 글이 페이스북 뉴스피드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언론인들이나 연구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점진적 기능 개선을 거듭하면서 뉴스

피드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추정하고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감시 수단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크라우드탱글은 페이스북 임원들에겐 눈엣가시였다. 외부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데이터의 범위와 양이 증가하면 할수록 더 강한 질책과 비난을 감수해야 해서다. ‘뉴스피드는 보수 세력의 에코 체임버’라는 비난 담론이 확산된 기저에도 크라우드탱글이 있었다(Kitchens, B., Johnson, S. L., & Gray, P. 2020). 외부인이 보다 쉽게 에코 체임버를 관찰하고 계량화하도록 진화시켰기 때문이다.⁴⁾ 페이스북이 이러한 방향의 성장에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으려한다는 것은 작은 디지털 도구 하나가 알고리즘의 왜곡, 편향, 신뢰를 감시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 반증한다. 투명성의 위협으로 난처한 지경에 빠진 페이스북 임원들은 크라우드탱글을 무력화하는 대신, 감사보고서로 대체하는 방향 전환을 검토 중이다.

파이어폭으로 유명한 모질라 재단은 최근 ‘유튜브 유감’(YouTube Regret)이라는 39쪽 분량의 감사보고서⁵⁾를 펴냈다.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이 유튜브 자체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를 증폭 확산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비영어권 국가에서 더 심

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 근거들을 세세한 수치들과 함께 제시했다.

이 보고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제안한 해법에 있다. 특히 제도와 정책당국자를 향한 제안은 귀담아 들을 대목이 많다. 무엇보다 알고리즘 감시를 위한 공익적 연구를 위해 강력한 데이터 액세스 프레임워크를 플랫폼 기업들이 설치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조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액세스 프레임워크란 쉽게 말해 데이터 분석 및 감시 도구를 뜻한다. 클라우드탱클처럼 언론인, 연구자 등이 쉽게 접근해 알고리즘이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열어둔 준개방형 디지털 서비스다.

‘도구가 알고리즘 감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고 가벼이 보면 안 된다. 페이스북 임원진을 벌벌 떨게 했던, 그래서 조직 개편까지 단행하며 힘을 빼놓고 싶어 했던 대상이 바로 데이터 감시 도구였다. 알고리즘 소스를 통째로 공개하는 것보다, 선언적 수준에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정책적 효율을 관찰할 수 있는 게 바로 준개방형 데이터 액세스 도구다.

물론 이 도구는 감시 의지를 지닌 저널리스트와 연구자들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감시 방법론으로 무장한 주체들이 협업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알고리즘 감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시점에, 감시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작동 가능성은 충분하다.

국내에선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 높은 강도의 규제책을 내놓는 경마식 입법 경쟁도 계속되고 있다. 네이버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 설계 과정과 아키텍처를 공개하며 대응을 이어가는 중이다.⁶⁾ 그러나 정책 집행의 효과에 대한 검토는 치밀하게 논의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전문가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에게만 감시의 기회를 허락하는 ‘감시 엘리트주의’ 아이디어에 머무르고 있다.

감시의 효과는 감시하는 ‘시선’의 양과 다양성에 비례한다. 감시자와 감시대상의 유착도 양과 다양성에 의해 통제될 때 가능성이 낮아진다. 알고리즘의 위험을 진심으로 평가, 해결하고 싶다면 정책설계자들의 접근법부터 혁신이 필요하다.



1) <https://www.crowdtangle.com>

2) https://twitter.com/katestarbird/status/1415317985581932550?mc_cid=313d5d958a&mc_eid=a7ec954a8a

3) <https://www.theverge.com/2016/11/11/13594338/facebook-acquires-crowdtangle>

4) <https://www.nytimes.com/2021/07/14/technology/facebook-data.html>

5) <https://foundation.mozilla.org/en/campaigns/youtube-regrets/>

6) https://blog.naver.com/naver_search/222439351406

<참고문헌>

*Kitchens, B., Johnson, S. L., & Gray, P. (2020). Understanding Echo Chambers and Filter Bubbles: The Impact of Social Media on Diversification and Partisan Shifts in News Consumption. *MIS Quarterly*, 44(4).

지난 1월 영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거의 육만 명에 육박했다. 여태 코로나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 수는 약 십오만 명이 넘는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사망한 영국인 수가 약 사십오만 명 정도이니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다. 그간 전면적 봉쇄 조치를 세 번이나 단행했는데, 하루 한 차례 운동 목적의 외출 및 생필품 관련 쇼핑 외에는 집에서 나갈 수 없고 가구원 이외에는 만날 수 없는 등의 극단적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니 다들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왔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백신 접종자 수가 많아지면서 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빠른 속도로 줄자, 영국은 방역 관련 제한을 급격히 완화했다. 작년에 치르지 못하고 미뤄진 유로 2020 축구 대회를 우려 섞인 목소리를 무릅쓰고 관중 입장을 허용한 가운데 개최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영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올림픽을 제외한 국가 간 축구 경기에 영국 단일팀이 아니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네 팀을 출전시킬 수 있다. 이는 우선 영국이 비록 한 나라(state)지만 네 개의 구성국(constituent countries)의 정치적 연합체이기 때문이다. 각 구성국들은 각자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심지어 웨일스의 경우 고유 언어를 학교에서 따로 가르칠 정도다. 또한 영국이 근대 축구의 규칙을 처음 제정한 종주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네 개의 구성국에 따로 존재했던 각

각의 축구협회가 여전히 국제 축구계에서 개별 존재로 인정받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각 구성국별로 대표팀을 꾸려 출전하는 경우 단일팀에 비하여 전력이 약할 수밖에 없을 듯한데, 그래서인지 잉글랜드를 제외한 다른 구성국의 축구 대표팀들을 국제 경기 본선에서 보기란 쉽지 않다.

영국 축구는 유독 독일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 왔는데, 독일은 가뜰이나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이었던 나라다. 두 번 다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고, 영국은 힘겹게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고 자유를 지켜냈다. 그러나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다시 강성해져 유럽연합(EU)의 맹주로 자리 잡았으니, EU를 탈퇴하기로 한 영국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독일에게 속 시원히 이겨 본 적이 그리 없는 것이다. 잉글랜드가 메이저 대회, 즉 월드컵, 유로의 토너먼트에서 독일을 꺾은 것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 결승전 연장 승리가 마지막이다.

이런 와중에 영국에서 열린 유로 2020에서 영국, 엄밀히는 잉글랜드 팀이 독일을 꺾었다. 무려 55년 만의 일이라 하니, 영국인들이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다. 방송과 신문은 그야말로 온통 축구 이야기로 뒤덮였다. 마치 팬데믹 상황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사실 이렇게 축구 경기에 열광하는 영국인들을 지켜보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

늘

그 곳에

을 수 없었다. 축구장을 가득 메운 마스크 없는 관중들을 뉴스에서 볼 때나, 동네 펍(Pub)에서 맥주잔을 앞에 놓고 역시 마스크도 없이 열렬히 응원하며 때론 얼싸안고 뛰는 사람들을 볼 때, 확진자가 일일 수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래서야 더 늘지 않겠나 싶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잉글랜드 팀이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확진자 수는 일일 천 명 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만 명이 넘을 정도로 증가 일로인데, 이 증가세에 유료 경기가 기여를 하였음은 틀림없는 일이라 하겠다. 이 지경이 된 바에야 기왕이면 우승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것이다. 우승을 한다면 그간의 우울함과 슬픔을 좀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활기찬 사회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아쉽게도, 잉글랜드는 결승전에서 선취골을 넣었음에도 연장 및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에 졌다. 세 명의 선수가 승부차기에 실패했는데, 문제는 공을 넣지 못한 세 명의 선수가 모두 흑인이었다는 데 있다. 당장 소셜 미디어는 이 세 선수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욕으로 도배가 되었다. 경기에서 지는 순간, 모두가 예상하고 우려하면서도 그렇지 않기를 바랐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통합의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랐던 축구가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세 명의 흑인 선수에 대한 차별적인 공격이 휩쓸고 지나간 후, 윌리엄 왕세손이나 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명사들이 실축을 한 선수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 정부는 소셜 미디어 운영 회사들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람들의 지적사항을 넘기라는 요구를 했다.

하지만 이런 분열은 축구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해 새삼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쪽 거기 있어 왔던 차별이 계기를 만나 표면으로 부상했을 뿐이다. 모두 마음을 모아 응원했던 축구 경기 끝에 차별이 터져나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사회의 인종차별적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니 이를 계기로 반성하고 더 나은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영국신문 더선(The Sun)의 스코틀랜드판인 더 스코티시선(The Scottish Sun)이 7,800명이 넘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사람들 중 3분의 2는 잉글랜드가 승리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한다. 잉글랜드만 빼고 아무 나라나 응원한다니, 이 역시 영국 사회 분열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있던 분열



취재 나가면 화장실이 가장 문제입니다. 제가 여성 이어서인지 화장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절실할 때가 많습니다. 한국이나 선진국은 어딜 가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입니다. 그러나 제가 취재 다니는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에서는 화장실 확보가 아주 큰일입니다. 그리고 가보면 엄청난 화장실 많습니다. 그걸 다 묘사하면 저부터 오늘 식사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비위생적이고 힘든 시설이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들판과 사막 한가운데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면 정말 힘듭니다. 최대한 안전한 장소를 확보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재 나가기 전 무조건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화장실 찾아 삼만 리 하는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라크 종군 기자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미군

부대 중 스트라이커 부대가 있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탱크와 비슷하지만 캐터필러 대신 바퀴가 달려있어 아주 빠르게 공격합니다. 작전 전개외 가장 선두에 서는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부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전 중인 스트라이커 안에서 한창 취재를 하다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밖은 사막지대를 지나가고 있고 언제 어디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저는 화장실이 가고 싶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그리고 나중에 미치도록 화장실이 그림습니다. '아 안되겠다' 하고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종군 기자 프로그램 규정상 신변 문제는 중대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화장실도 그 중 하나입니다.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러자 중대장이 "참을 수 있으세요? 아니면 지퍼백에 해결하세요. 우리 중대원들에게 도와드리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병사들이 작전 중 화장실을 지퍼백에 해결하는 것도 규칙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좁은 스트라이커 안에

거룩한 화장실



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으니 한 시간이랍니다. 한 시간이면 무조건 참자!! 저는 그 한 시간 동안 하나님, 부처님, 알라다 찾은 듯합니다. 죽어라 참았습니다. 아무리 아줌마라도 체면이 있지 지퍼백은 정말 아닙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정신이 혼미한 채 부대 안으로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커 문이 정말 천천히 열립니다. 그날따라 더 천천히 열립니다. 열려라 참개를 열 번은 외친 듯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사인 볼트처럼 달려가서 해결. 살 것 같았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무아지경. 어디선가 거룩한 음악이 들리는 듯 하고 마치 종교의식을 끝낸 듯 평화가 찾아 왔습니다. 그 표정으로 화장실 밖을 나오니 같이 스트라이커 타고 온 병사들이 아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있었습니다. 제가 쓰러질까봐 걱정했습니다. 저의 얼굴색이 아주 파래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지퍼백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저 제 머릿속은 화장실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화장실에 대한 공포가 생겼습니다. 작전 나가기 전에 무조건 화장실을 가는데도 이상하게 스트라이커만 타면 또 화장실이 생각납니다. 다행히 그 때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는 없었습니다. 영원히 없어야죠.

화장실 찾는 건 아랍 지역에서도 일입니다. 아랍 국가에서는 반드시 여성 두 사람이 화장실을 같이 갑니다. 그 이유는 강간이나 성폭행 등을 피하기 위한 거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모르고 혼자 갔었는데 같이 일하는 현지인(대부분 남자 스태프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남자냐. 혼자 화장실 가는 여자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저랑 화장실 같이 가줄 여성을 찾아야 안전하다는 거죠. 그게 그곳 문화래요. 로마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그 사람들이 그렇다니 별수 없습니다. 화장실 동무 찾아야지요. 아랍 국가 여성이 외출을 하면 대부분 가족, 친지와 함께이니 문제가 없겠지만 저처럼 취재 온 사람은 현지에 가족이 없으니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화장실 동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로 통역이 여성에게 다가가 “죄송합니다만...” 이러면서 시작해야 하는데 어느 아랍 여성이 모르는 남성이 부탁하는데 그걸 들어주겠어요. 결국 제가 구해야 합니다. 먼저 아랍어를 익혀야 하는데 그것도 아주 급한 상황이라는 표가 팍팍 나게 어투와 뉘앙스까지 연습하세요. 가장 착해 보이는 인상을 찾아(얼굴 안보이게 완전히 덮는 니카이나 부르카를 입었다면 무작위로) 어버버하는 현지말로 “화장실.. 같이... 가주실래요? 저는 혼자라 화장실 못..가요...” 이렇게 아주 불쌍하고 간절한 표정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신히 화장실 동무를 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루에 화장실을 딱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못해도 하루에 서너 번을 그렇게 해야 하니 저도 피곤하고 같이 일하는 현지 스태프들도 “화장실” 이러면 “또야?”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물 마시는 것도 조심, 차 마시는 것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다 잘못 걸리면 인터뷰이가 차를 끊임없이 먹입니다. 아랍에서는 손님이 오면 무조건 홍차부터 들고 오거든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차를 한 잔, 두 잔 마시면 우리 스태프들의 얼굴이 안 좋습니다. 화장실 섭외하기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취재 나갈 때 현지 스태프의 아내가 화장실 동무 불박이로 배정되기도 합니다. 취재 도중 위험하지만 않으면 멀리 돌아가더라도 스태프의 친척집이라도 들러 화장실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횃수를 한 번이라도 줄이려고 아침에 취재 나가기 직전 화장실을 반드시 갑니다. 이게 버릇이 드니 한국에서도 어디가기 전에 꼭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어딜 가나 화장실이 많은 한국인 데도요. 암튼 취재하면서 화장실 동무도 데리고 다녀야 하더니 생전 생각도 못 해본 일입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제가 현지에 맞춰야지 어찌겠습니까. 아쉬운 사람은 저예요. 그래서 한국 있을 땐 화장실만큼은 자유롭게 아주 많이 즐기고 싶어요. 한국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을 하고 마치 종교 의식처럼 거룩한 자세로 화장실 가는 사람을 보신다면 아마 저 일겁니다.

진정한 지식인

信道篤,

신도독

而自精明也.

이자지명야

—
도에 대한 믿음이 깊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밝다.

한유(韓愈)의 <백이를 칭송하는 글[백이송(伯夷頌)]>에 나오는 구절이다. 한유는 당나라 때의 문장가이자 정치가로 감찰어사, 경조윤 등의 높은 관직을 지냈다. 그는 문장의 형식적인 수사를 반대하고 내용이 있는 질박함을 강조한 '고문운동'을 전개했고, 그에 걸맞게 뛰어난 글을 많이 남겨 중국 산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은(殷)나라 말기에 제후인 무왕(武王)이 천자인 주왕(紂王)를 정벌하기 위해 나섰다. 백이와 숙제는 이 소식을 듣고 찾아가 무왕의 말고삐를 당기며 말렸으나 듣지 않자 <채미가(采薇歌)>를 지어 비판했다.

登彼西山兮,
采其薇矣.
以暴易暴兮,
不知其非矣.
神農處夏,
忽焉沒兮,
我安適歸矣.
于嗟徂兮,
命之衰矣.

저 서산[수양산]에 올라,
고사리를 뜯는다.
폭력으로 포악을 바꾸면서,
그 잘못을 알지 못하는구나.
신농씨, 순임금, 우임금이,
홀연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아 떠나리니,
천명이 쇠약해졌구나.

신하인 제후가 주군인 천자를 치는 하극상을 비판하면서 “폭력으로 포악을 바꾼다.”라고 했다. 폭력은 무왕이 일으킨 전쟁이고 포악은 주왕이

저지른 악행이다. 당시에 누구도 무왕의 정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상황에서 백이와 숙제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간언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죽음을 택했다.

<백이송>은 백이와 숙제를 칭송한 글이다. 남의 비판이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자신의 신념에 따라 옳다고 여기는 일을 추구했던 선비, 즉 지식인의 본분과 자세를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 다음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선비가 우뚝 서서 홀로 나아가면서 의에 맞게 할 뿐이고 남의 시비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모두가 위대하고 뛰어난 선비로서 도에 대한 믿음이 깊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밝기 때문이다. 한 집안이 그를 비난하더라도 힘써 나아가면서 미혹되지 않는 사람은 드문데, 한 나라와 한 주가 그를 비난함에 이르러서도 힘써 나아가면서 미혹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천하에 한 사람뿐일 것이다. … 은나라가 망한 뒤 천하 사람들이 주나라를 받들었지만, 저 두 사람은 유독 주나라 곡식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굶어 죽으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 이로써 말한다면 어찌 구하는 것이 있어서 한 것이겠는가. 도에 대한 믿음이 깊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밝았던 것이다. 지금 세상의 이른바 선비라는 자들은 평범한 한 사람이 그를 칭찬하면 스스로 뛰어나다고 여기고, 평범한 한 사람이 그를 비난하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는데, 그들만은 유독 성인(聖人)을 그러다고 하고 스스로를 옳다고 여긴 것이 이와 같았다.(士之特立獨行, 適於義而已, 不顧人之是非, 皆豪傑之士, 信道篤而自知明者也. 一家非之, 力行而不惑者, 寡矣, 至於一國一州非之, 力行而不惑者, 蓋天下一人而已矣. … 殷既滅矣, 天下宗周, 彼二子, 乃獨恥食其粟, 餓死而不顧, 繇是而言, 夫豈有求而爲哉. 信道篤而自知明也. 今世之所謂士者, 一凡人譽之, 則自以爲有餘, 一凡人沮之, 則自以爲不足, 彼獨非聖人而自是如此.)

선비는 올바름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남들의 시비에 구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신념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공자는 <논어·위영공(衛靈公)>편에서, “뜻을 지닌 선비와 인을 이룬 사람은 살기를 구하느라 인을 해치는 경우가 없고 자신을 죽여서 인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志士仁人, 無求生而害仁, 有殺身而成仁.)”라고 했다. <논어>에는 공자가 백이·숙제를 칭송한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온다. 공자는 그들을 ‘살신성인’의 한 전형으로 여기고 있었던 듯하다. 나아가 한유의 <백이송>도 공자의 백이·숙제에 대한 칭송에서 모티브를 얻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에게도 <백이송>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학 시절에 이 글을 읽고 그 내용과 기개에 감동하여 좌우명으로 삼았다. 문장 전체를 암송했고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외우다 보니, 삶의 갈림길에서 이정표가 되어 왔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선비를 정의하여, “선비는 자신의 신념을 한 시대만이 아니라 만세에 전하려는 확신을 지닌 인격체라 할 수 있다. 도를 밝히고 자신을 연마하여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도를 실천하는 노력의 과정이 선비의 일생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의리는 정당성을 제시하며, 선비는 이 정당성의 명령에 따라 어떠한 장애와 고난도 감수하고 자신의 태도를 결코 굽히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 실례로 조선 중종 때의 학자이자 문신인 조광조(趙光祖)를 들고 그가, “무릇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하여 도모하며, 일을 당해서는 과감히 실행하고 환난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바른 선비의 마음씀이다.”라고 한 말을 인용했다. 이것이 바로 조선조 지식인들의 선비 정신이었다.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의 의사(義士), 열사(烈士)들이 또한 이러한 선비 정신을 행동으로 구현한 이들이다.

“지금 세상의 이른바 선비라는 자들은 평범한 한 사람이 그를 칭찬하면 스스로 뛰어나다고 여기고, 평범한 한 사람이 그를 비난하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긴다.”라고 한 구절은 장자(莊子)의 가르침을 차용한 것이다. <장자·소요유(逍遙遊)>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다고 더 분발하지도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더 기죽지도 않는다.(舉世而譽之而不加勸, 舉世而非之而不加沮.)”라고 하여 남들의 칭송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지식인의 올곧은 자세를 제시했다.

보통 사람들은 남들이 비난하면 신념이 흔들리고 기가 죽어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다. 평범한 한 사람이 칭찬한다고 우쭐거리는 사람은 평범한 한 사람이 비판하면 바로 기가 죽고 자신감을 잃는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도를 넘는 칭송과 아부, 근거 없는 비방과 독설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면서, 참고할 만한 비판은 수용하고 무시할 만한 것은 과감히 무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올바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나 자신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너는 그곳을 '오이마을'이라 불렀다. 상상력은 없으나 실용적인 이름이긴 했다. 그 마을을 아는 사람이라면 대뜸 '아, 거기!' 하고 알아들었으니까.

초록이 한창이고 더위도 한창이었다. 네가 한철을 보내고 있던 타국의 도시가 술렁이고 들썩이며 여름에 반응했고, 그 기세에 휩쓸려 너도 친구와 함께 짧은 여정을 꾸렸을 것이다. 목적지는 베를린 남동쪽을 향해 기차로 한 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독일의 베니스' 혹은 '독일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슈프레발트(Spreewald)였다. 오리나무와 소나무로 가득한 삼림과 200개 이상의 작은 수로들로 이루어진 그곳은 1991년, 유네스코에 의해 생물권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슬라브계 소르비아인 후손들은 그들의 언어와 관습을 여전히 지켜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기차 안에서 들었다. 슈프레발트의 중심도시가 뤼베나우(Lübbenau), 즉 오이마을이다.

마을의 3분의 2 정도는 과연 수로와 나무들이 점령하고 있었고 집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선 형국이었다. 오목한 강기슭마다 날렵한 카누가 늘어서 손님 기다리고 있었다. 카누를 타본 적은 없었지만 강은 잔잔하고 다정해 보여서 너도 한 척을 빌렸다. 뒤쪽에 앉은 친구가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동안 너는 생각보다 무거운 노를 붙잡고 킁킁거리다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강물에 뿌리를 담은 나무의 가지가 너의 손목을 건드리고 오리들은 줄을 지어 종종종 다가왔다 멀어졌다. 낮은 집들 앞에는 색색가지 우편함들이 고개를 내민 채 수로로 배달되는 편지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맞은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태운 큰 배가 다가와서 친구는 배의 방향을 살짝 틀었다. 그 배의 사공은 느릿느릿 노를 저으며 장광설을 늘어놓았고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며 잔잔한 웃음을 짓다가 너와 친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 디즈니랜드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친구의 말에 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리 현실적으로 느껴질까 의아해 했다. 이국에서의 짧은 여행, 낯선 곳에서의 낯선 경험은 마땅히 낯설어야 할 텐데. 그런 느낌이 너는 싫지 않았다.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 시간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게 흐르는 것, 네가 그 순간 그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가 불투명한 것을 너는 늘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여행은 언제나 너에게 모험이었다. 하지만 그곳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고 너 역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듯했다.

그렇게 한 시간쯤 어슬렁거리며 흘러가다 강둑에 서 있는 고풍스러운 레스토랑을 만났다. 너와 친구는 배를 대고 물으로 올라가 레모네이드를 탄 맥주 두 잔을 시켰다. 2차 세계대전의 폭격에서 살아남았다는 오래된 건물의



미 련



뤼베나우, 독일



실내는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 속에서도 서늘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그래도 너와 친구는 굳이 정원에 자리를 잡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았다.

그날 저녁에는 숙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도시의 중심지에서 밤을 보냈다. 작은 광장에는 천막이 들어섰고 온갖 음식을 파는 가판대에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알고 보니 마을 탄생 70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기간이었다. 오이가 특산물인 마을답게 다양한 종류의 오이피클은 물론이고 오이소시지, 오이아이스크림, 오이맥주까지, 온통 초록빛깔, 오이빛깔이 가판대를 뒤덮고 있었다. 너는 맥주와 소시지를 골랐다. 능청스러운 진행자가 흥을 돋우는 무대 위로 마을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른들이 차례로 올라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날을 위해 초청된 뮤지션들과 코미디언들이 각자의 몫을 하고 내려간 밤 열 시, AC/DC 카피밴드가 무대에 오르자 전통의상을 입은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더위가 풀썩 주저앉고 강바람이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며 그 자리를 메웠다. 동화 같은 마을과 카피밴드라니, 썩 어울리는 조합이 아닌가 싶어 너는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닐 미, 익힐 련,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 있는 마음'을 미련(未練)이라 한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익히지 아니함'이다. 익힐 련(練)은 가는 실 사(糸)와 가릴 간(柬)이 만난 것으로 束은 나뭇단을 묶어 놓은 모습이다. 수많은 나뭇가지에서 쓸 만한 것을 가려 나뭇단으로 만들었으니 '가리다', '분간하다'는 의미로 사용될 만하다. 실(糸)은 누에고치에서 뽑았으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쌓아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무언가를 '익힌'다는 건 우연히 혹은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경험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삶을 짊어지고 가는 한 꺾지 않을 수 없는 심장의 불규칙한 고동, 애를 끊는 간절함,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게 흐르는 시간, 타인에 의해 혹은 스스로에 의해 너의 존재를 부정당했던 순간을 너는 이미 넉넉하게 경험한 것이었을까. 지금도 지속되고 앞으로 찾아올 고통에 대항할 미약한 항체라도 생겨난 것일까.

그곳에서 너의 시간은 심장이 뛰는 속도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속도로 흘러갔다. 따뜻한 현실에 감싸여 너는 생각했다. 충분히 익히면, 충분히 익숙해지면 더 이상 어딘가에 마음을 두고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미련은 다 두고 오롯한 사랑만 가져오는 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얇은 관계가 망치는 삶과 기억 윌리엄 트레버의 『펠리시아의 여정』



124킬로그램의 몸무게, 하루 중 손꼽아 기다리는 때는 식사 시간이고 먹는 데서 거의 생의 유일한 기쁨을 느끼는 힐디치 씨. 턱살이 뒤로 밀리며 눈이 단춧구멍 같다는 작가의 되풀이되는 묘사는 매력 없는 외모지만 독자들이 이런 그에게도 연민 어린 시선을 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윌리엄 트레버의 수작 『펠리시아의 여정』은 작가가 한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선함'에 관한 책이다.

애정 결핍이 있는 힐디치 씨지만 풍성한 밥과 간식은 그의 기분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줬다. 직장 동료들에게 다정한 미소를 잃지 않게 하면서, 그에게는 자기만의 우정을 쌓는 방식이 있는데, 어느 날 우정의 목록에 펠리시아가 우연히 끼어든다. 가슴도 작고 보잘것없는 침대 후반의 그녀가 아일랜드로부터 영국 땅에 건너오면서, 의지가 지없고 초라

한 펠리시아는 힐디치 씨로 하여금 뭔가를 채워주고 싶게 만들어 둘은 우정을 맺을 운명이 된다.

그런데 배경도 뭣도 없는 이 여자가 '나' 힐디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기도 안 찬다. 임신 4개월의 몸으로 자신을 갖고 논 애인을 찾아 국경을 넘은 그녀는 어리석은 소년일 뿐인데, 내가 차도 태워주고, 낙태수술도 시켜주고, 집에서 재워준 데다 음식까지 먹여도 은혜를 모른다. '아니, 돈은 내가 다 쓰는데 여자들은 왜 감사라고는 모르는 걸까?' 그는 화를 누르기가 힘들다. 이 일방적인 우정이 잔잔한 전개를 점점 옥죄면서 이야기를 공포로 몰고 간다.

『펠리시아의 여정』을 읽으면서 나는 생각한다. 책을 읽는다는 건 즐겁고 달콤한 일일까? 특히 소설은 타인에 대한 공감력을 확장시켜 독

자에게 좀 더 풍부한 삶을 향유하도록 만든다는데 맞는 말일까? 어떤 일인지 요즘은 책 속에서 예기치 못한 기억의 단서들과 마주치면서 독서의 배신(?)을 더 많이 느낀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그간 잊고 있던 20대 초반의 진흙 같은 우정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K도 힐디치 씨처럼 몸집이 컸고 웃는 인상에 늘 먹을 것을 즐겼다. 사랑과 우정은 양 당사자 마음에서 동시에 싹트기도 하지만, 한쪽이 먼저 호기심을 보이는 방식으로 형성될 때도 많다. '선한' K는 도서관에서 만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콜릿을 주고, 음료를 사다주고, 귀여운 물건을 건네는 식으로 우정을 표시했다. 우리는 짧은 기간 꽤나 가까웠다. 그가 아침부터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고, 밤늦게야 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이 설익은 우정은 갑자기 막을 내린다. 며칠간 K가 안 보이기에 싸이월드에 들어갔다가 그가 남긴 글을 보게 됐는데, 자신이 "열 개를 베풀었지만 하나도 되돌려 받지 못해서 화가 난다"는 내용이 있었다. 내가 잘못된 게 뭘까 되새김질하는 한편 나는 그 분노가 무섭기도 했다.

"저는 가야 해요." "오벌틴 좀 마셔, 펠리시아." "이제 집에 가야 해요." "난 펠리시아가 좀더 머물면 좋겠어." "전 괜찮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펠리시아. 내 말 이해하나?" 한편에서는 주려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밀어내는 이 관계는 곧 파국을 맞을 것만 같다. 힐디치 씨 입장에서 그냥 곁에 좀 있어달라는 게 전부이고, 게다가 너한테 밥과 거처까지 베풀었으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여긴다.

나는 20년도 더 된 K와의 짧은 만남을 힐디치 씨와 펠리시아 때문에 불현듯 떠올린다. 이러한 서술기억은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의식에서 떨어져 나간 과거의 정신 상태에 대한 앎, 혹은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지 않은 사건...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의식을 추가로 동반한 앎"이다.

생애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던 힐디치 씨는 가끔 우울했지만 그렇다고 엉망진창으로 살지는 않는다. 그는 지난간 몇몇 우정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변모시켜 저장할 줄 아는 데다 쓸쓸할 때면 그것들을 끄집어내 자기 삶이 황폐해지는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기 때문이다. 주로 짧은 우정만 맺어왔던 그에게는 숫자가 중요하다. 곁에 아무도 없어 외로워지면 그는 회상하며 우정을 카운팅한다. 베스, 샤론, 보비, 게이, 엘시 커빙턴, 재키. 그리고 흥분되

게도 일곱 번째 우정이 시작되려 한다.

힐디치 씨가 축적하고 기억하는 이런 우정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사실 우리도 관계를 수량화해보지 않았던가. "요즘에는 의대생들이 꼬여." 내 지인이 몇몇 남자의 접촉을 스펙처럼 여기며 했던 말이다. "맘에 안 들어도 만나봐. 아무도 안 사귀는 것보단 낫잖아." 어떤 어른이 로맨스의 관계를 한 번도 갖지 못했던 내 조카에게 한 말이다. 20대의 나도 사귀 이성의 숫자를 셀 때 큰 의미 없는 관계까지 포함시켰다. 그 시절엔 숫자가 빈약하면 초라해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커지면 자선이 됐으니까.

무서운 점은 젊을 때 기억을 이처럼 멋대로 만들면 나이가 들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힐디치 씨는 그동안 자신을 떠났던 여자들을 "기억의 뒤안길"에 둔 채 잊고 지내왔다. 뭔가를 많이 먹으면 어두웠던 기억에 전구가 켜져 다시 낮의 밝음 속으로 되돌려졌고, 그렇게 알상은 고장 나지 않은 채 잘 굴러왔다.

하지만 따뜻하고 친밀한 기억을 갖지 못한 사람은 후반생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기억이 우리의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 ... 뇌는 이따금씩 파편적인 기억을 던질 테고, 심지어는 기억의 묵은 폐쇄회로를 터주기까지 할 것이다." (줄리언 반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짧은 경험도 값졌다고, 피상적인 관계도 우정이었노라고 얼버무리면서 지나왔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늙은 나'에게 다가와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힐디치 씨는 지웠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된다.

이 책의 서평을 힐디치 씨에게 주목해 썼지만 실은 펠리시아에게도 조명을 비춰야 한다. 그녀가 거리의 인생으로 추락하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은 충격이고, 한편 그런 삶도 소중히 여기는 그녀가 대단하게 여겨지니까. 펠리시아에게도 행복한 기억이 있다.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를 섰던 일, 학교에서 수녀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일, 한 남자에게 사랑받았던 일. 하지만 이젠 그런 기억을 마음에 두지 않으며, 노숙인의 삶이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하지만 그녀가 나이 들었을 때 기억이 그녀를 내버려둘까? 그때도 여전히 꿈속에서만큼은 '내게도 예전엔 부모가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는데'라며 달콤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을까?

숲 속 약국



독일 하이델베르크성의 약제박물관

자연인들의 치료제

요즘 제가 가장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은 '나는 자연인이다'입니다. 미디어에 식물이 등장할 때마다 유심히 보는 편인데 이 방송에는 식물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연인이 식물을 부르는 이름과 찾는 과정, 먹는 방법, 약효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식물을 잘 아는 자연인이 나와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도 흥미롭지만 식물을 잘 모르는 사람이 서툴게 식물을 채집하고 그 식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일까 긴가민가 하는 것을 보면 '자연인'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엉뚱한 식물에 대해 본인만의 강한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재미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확신에 찬 일장연설에 식물을 공부하는 저 또한 훔칠 때도 있죠. 이렇게 식물을 찾아 산을 헤매고 어디에 좋은 식물일까 고민하는 모습은 인류 역사에서 약용식물학의 시작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민족식물학과 약용식물학

식물학의 여러 분야 중 민족식물학 혹은 민속식물학(Ethnobotany)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류는 탄생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 면에서 식물에 의존해 왔습니다. 지구의 생산자인 식물은 인간에게 음식, 약, 섬유, 기름, 건축재 등 많은 것을 주었고 지금도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민족식물학은 이런 식물과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각 지역, 문화에서 인간은 여러 용도로 식물을 사용해 보고 터득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지요. 제가 아는 민족식물학자에게 연구를 시작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그 답이 흥미로웠습니다. 여러 접근법이 있겠지만 주로 깊은 산골의 오지 마을로 가서 그곳 원주민을 만나 어떤 식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묻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민족식물학에서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약용식물학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의학이 있듯 각 나라마다 식물로부터 치료약을 얻은 역사가 존재하며 그 시작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합니다. 인간은 상처나 질병 치료 외에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으로도 식물을 폭넓게 이용해 왔습니다.

약 6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매장지에서 8종의 식물이 함께 묻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는 지금도 약용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초기 식물의 약효를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조금씩 바르거나 먹어보는 것이었고 그 지식이 세대를 거치며 축적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때론 다른 곤충이나 동물이 먹는 약초를 보고 추정하기도 했지요. 물론 이 방법은 어설픈 자연인의 시도처럼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실제 약용 식물에 큰 공헌을 한 그리스의 약리학자 페다니우스 디오스코리데스(Pedanius Dioscorides)의 유명한 약학 서적인 드 마테리아 메디카(De Materia Medica)에 등장하는 많은 약용식물들 중에는 오히려 해당 병에 좋지 않거나 모호한 식물들도 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 약용식물 기록

기록물을 보면 기원후 50~70년에 완성된 드 마테리아 메디카보다 오래 전에 작성된 여러 약용식물 서적들이 발견됩니다. 기원전 3500년경 고대 이집트인들의 약초 기록이 남아 있고, 약용식물 지식이 집약된 이집트의 약학 서적 에버스 파피루스(Ebers Papyrus)는 기원전 1550년경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오래된 파피루스 문헌 중 하나이지요. 인도의 आयुर्वेद 의학 서적은 기원전 약 25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기원전 460~370년)도, 여러 분야의 학문에 이바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322년)도 약용식물을 기록했지요. 중세에는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기르는 약초를 식별하기 위해 그림과 함께 기록하고 여러 필사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500년 이후 대륙 탐험과 수집, 문물 교환은 많은 기록들을 남겼고 미처 알지 못했던 약용식물을 다른 문화권에서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된 허준의 동의보감은 1600년 초에 완성되었습니다.

인류를 구한 약용식물들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이 꾸준히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신종플루의 경우 발 빠르게 개발에 성공한

치료제, 타미플루로 급속히 안정화되었는데요. 당시 제가 있던 실험실에서 타미플루의 원재료 식물인 팔각(*Illicium verum*)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팔각은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자생하고 여러 아시아 지역에서 재배되는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붓순나무(*Illicium anisatum*)와도 닮은 오미자과의 식물이지요. 오래 전부터 동양권에서 한방의 약재로, 요리의 향신료로 사용된 식물을 미국의 제약회사가 약으로 개발하면서 팔각의 품귀현상과 생물자원의 권리, 계통학적으로 가까운 붓순나무 같은 대체 식물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금도 새로운 병이 출현했을 때 그 치료약을 식물로부터 찾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는 경우도 많았죠. 양귀비에서 추출된 모르핀, 버드나무에서 추출된 아스피린, 심장질환 치료제인 디기탈리스, 3500년 동안 기침약으로 사용된 감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약제에 들어 있는 식물화학물은 식물이 초식동물을 방어하거나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등 자신의 생존과 진화를 위해 스스로 제조해 온 것입니다. 인류는 그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모든 답은 자연 속에

약용식물을 이용한 약제 개발은 오래 전에 기록된 고문헌에서 그 실마리를 얻기도 하고 식물 화학물이 기록된 간단한 보고 논문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아직 화학물을 추출해 보지 않은 다양한 식물들을 시험하다 약효를 우연히 발견하기도 하지요. 지구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식물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식물들도 있겠지요. 약용식물은 사람이 그 활용도 때문에 구분하여 부르는 것일 뿐 다른 식물과 동등한 생명체입니다. 기후 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인해 사라지는 많은 식물 중 일부이겠지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미처 발견하기도 전에, 알아보고 감탄하기도 전에 사라져가는 많은 식물들을 항상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

위원회는 7월 1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대선 선거기사심의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8일까지 운영되며,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자체적으로 심의 하고, 후보자가 요청한 시정요구 안건 등을 처리한다. 선심위는 정당, 선관위, 언론학계, 대한변협, 언론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은 홍성무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부위 원장은 조원봉 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맡는다.



여름방학 청소년 언론중재스쿨 실시

위원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대상 언론중재스쿨을 실시한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론분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언론중재스쿨은 7월 22일부터 8월 19일까지 9차례 열린다. 모든 교육은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에서 볼 수 있다.



김성찬 대구사무소장 <씨네21> 영화평론상 최우수상 수상

김성찬 대구사무소장은 제26회 <씨네21> 영화평론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총 68편의 응모 작 가운데 심사위원의 고른 지지를 받은 김성찬 소장의 작품과 수상 소감 인터뷰는 <씨네21> 제 1314호 및 온라인에 게재됐다.

<씨네21> 관련 기사 캡처

Focus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 707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66.6% 늘어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707건의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6% 가량 증가한 것으로 심의기준 위반유형 가운데 사생활 침해 보도가 174건(24.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자살관련 심의기준 위반건수가 전년대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156건(22.1%)이었고, 피의자-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14.1%), 기사형 광고 83건(11.7%) 등이었다.

매체별로는 640건(90.5%)이 인터넷신문에 대한 결정이었고, 뉴스통신 44건(6.2%), 지역일간지 15건(2.1%), 중앙일간지와 종합주간지는 각각 6건(0.8%) 및 2건(0.3%)이었다. 한편, 상반기 중 동일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3차례 이상 반복 위반한 언론사는 38곳이었다. 위원회는 심의기준 반복 위반 언론사에 시정권고 결정사항과 관련 심의기준 등을 발송하는 한편, 상반기 시정권고 건수가 많았던 위반유형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위원 동정

서경주 위원, 번역서 <플라니우스 박물지> 출간

서경주 위원(서울제8중재부·전 광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이 로마시대 저작인 플라니우스의 '박물지'를 번역한 책이 7월 21일 출간됐다. 플라니우스의 '박물지'는 고대의 천문, 지리, 인문, 자연학 등에 걸친 지식을 총 망라한 저작으로, 국내 첫 번역되었다.

한선 위원, 제1회 광주지역대학 캠퍼스 순회 토론회 사회

한선 위원(광주중재부·호남대 신문방학과 교수)은 7월 8일 개최된 제1회 광주지역대학 캠퍼스 순회 토론회에 사회자로 참여했다. 이 날 토론회는 광주 지역대학의 현실을 공유하고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김건일 위원, 아시아기자협회 감사 선임

김건일 위원(제주중재부·전 한라일보사 사장)은 7월 12일 사단법인 아시아기자협회의 감사로 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관록 있는 마이클 돗스 기자에게 ‘팩트체커(fact checker)’라는 직함을 부여했다. 첫 고정 팩트체커가 된 돗스 기사는 공화당 진영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의 정치광고를 검증했다. 전립선암을 앓은 줄리아니 전 시장은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미국의 의료체계에서는 전립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82퍼센트이지만, 의료체계가 사회주의화된 영국에서라면 44퍼센트라며 오바마 후보 진영의 의료보험 개혁 정책을 공격했다. 돗스 기사는 국립암연구소, 국립보건원(NIH) 등의 전문가들을 최대한 접촉한 뒤 미국과 영국의 전립선암 환자 사망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증거들을 확보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피노키오에 빗대 ‘거짓’의 정도에 따라 피노키오의 개수가 늘어나는 <워싱턴 포스트> 팩트체커 판정에서 이 광고는 ‘새빨간 거짓말(whoppers)’로 해석되는 4개의 피노키오를 받았다.

줄리아니 측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반격의 핵심 주장은 돗스 기자의 입증과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었다. 돗스 기자가 저널리즘 윤리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줄리아니의 보좌관은 “기자는 양쪽 의견을 다 들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된다”며 돗스가 균형(balance)을 잃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돗스 기자는 “나는 기자의 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증거들로 지지할 수 있는 한 기자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 선거와 정치 팩트체크



미국에서 본격적인 정치 팩트체킹(political fact-checking)이 시작된 지 30여 년이 가까워가지만, 여전히 팩트체킹에 대한 정치 엘리트들과 언론인 혹은 전문적인 팩트체커들간의 공방은 끊이지 않는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의 워싱턴 정가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치 팩트체킹은 저널리즘 혁신운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기자가 취재대상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미국 언론의 오랜 객관주의 관행은 이른바 “그는 이렇게 말했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고(he said, she said)” 식의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귀결됐다. 이러한 보도는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중요 절차에서 언론이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하기보다는 알아서 판단하라고 던져두는 일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1980년대 말 팩트체킹 저널리즘의 필요성을 주창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로더는 “기자들은 정치인에게 자신의 말에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선거전에서 후보가 내놓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요구하고, 상대 진영의 반격도 들어보아 상황을 충분히 검증한다면, 기자는 독자들에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를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 팩트체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군이 드러나면서, 이들의 발언에 대한 검증작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검증대상이 되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발언이 ‘사실 아님’으로 판정될 경우 이를 ‘저격’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언론인들이 스스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불편부당성과 투명성 준수다. 검증대상의 선정부터 판정까지의 전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사실성에 오류가 없는지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체커는 검증 대상 선정에 관해 “좌든 우든 가리지 않고 부정확한 발언을 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 30개 언론사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협력해서 만든 SNU팩트체크 역시 검증원칙의 첫 번째로 불편부당성과 비당파성을 꼽고 있다.

공정한 팩트체크를 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미국의 팩트체크 기관들은 이에 대해 “당신의 일을 보여줘라(Show your work)”고 조언한다. 검증과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확보했는지 투명하게 밝히려는 것이다. 팩트체크에서 익명 인용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하며, 취재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공개가능한 증거들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정치 엘리트들이 유권자들에게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은 팩트체크를 하는 언론인들의 감시를 통해서다. 그 감시는 언론 스스로 불편부당성과 투명성을 지킬 때 비로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키 워 드 로 보 는 4 0 년 사

홍보책자



언론중재위원회의 첫 공식 홍보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1988년 '정정보도청구와 언론중재'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홍보책자입니다. 15페이지짜리 책자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주요 업무, 언론보도 피해구제 절차 등이 담겨있었는데요. 이후 지금까지 발간된 홍보책자들을 살펴보면 언론중재위원회의 40년 변화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조정·중재 제도의 변화나 언론중재위원회 성장과정은 물론, 흑백으로 제작되었던 것이 컬러가 되고, 텍스트 위주에서 다양한 이미지와 삽화가 등장하는 등 외양의 변화도 흥미롭습니다.

2007년 제작되었던 점자 홍보책자와 만화 홍보책자, 꾸준히 발간되고 있는 영문 홍보책자 등은 다양한 이용자층에게 언론피해 구제절차를 알리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 할 수 있겠지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홍보책자가 필요한 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대신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더 풍부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